

# ‘한전공대’ 1000억대 재정지원 설립 이행협약서 체결 ‘가속도’

전남도의회, 재정지원 동의안 가결  
나주시의회, 개발부담금 우려 표명도

1000억원대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도와 나주시, 한전간 공대 설립을 위한 이행협약서 체결이 이달 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오는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모두 1000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지원 동의안을 심의 끝에 가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 폐회 직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의안 제출은 5월 임시회에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많았지만 전남도는 4월 임시회 처리로 방향을 바꾸고 지난 5일부터 의회 설득에 나섰다. 한전공대는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만큼 설립절차를 예정대로 맞추려면 한전과의 협약서 체결 선결 조건인 동의안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또 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



한전공대 부지

/연합뉴스

지면 재정부담 논란이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시간 지체가 계속되면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의안 제출과 상임위 통과를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임시회 제출에 무게를 뒀던 전남도도 이런 이유로 4월 임시회 처리로 방향을 바꾸고 지난 나흘간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한국전력공사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고 정부 예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순탄히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신중하게 논의의 이어가자는 입장인어서 전남도의회 동의안 처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재정지원 동의안과는 별개로 나주시의회도 나주시의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금 1000억원과 연구소 클러스터부지 제공 개발부담금 66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들은 전남도보다 660억원이나 많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전공대는 오는 6월 설립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낙시웨어 입고 ‘월척’ 낚자!”

레저 분야 세분화 카테고리 진출  
셔츠부터 슈즈까지 라인구성 알차



K2 피싱라인 제품.

/K2

아웃도어 업계가 새 먹거리로 ‘낙시웨어’를 주목하고 있다.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업체들도 세분화된 카테고리로의 진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지난해 800만 명까지 늘었다.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웃도어 업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낙시웨어’ 라인을 새롭게 론칭해 선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낚시가 아웃도어 범주에 속한 만큼 도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체들은 기능성 웨어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낙시웨어 분야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레는 창립 98년 만에 처음으로 낙시웨어 라인을 출시했다. 등산이나 기능성 라이프스타일 웨어 중심의 라인업에 낚시(피싱)웨어 라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K2도 전문 낙시웨어인 피싱 라인을 새롭게 내놨다. 방수 자켓, 카고 팬츠, 그래픽 티셔츠, 피싱 베스트 등 의류 제품군과 피싱 슬링백, 피싱 모자, 피싱 장갑 등 용품군으로 구성됐다.

컬럼비아는 피싱웨어 전문 라인 ‘PFG’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셔츠, 팬츠, 베스트, 슈즈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

는 낚시 활동에 최적화된 피싱 슈즈 ‘도라도 CVO PFG’의 첫 선을 보였고, 올해는 PFG 라인 구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스트우드도 지난해 첫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낙시웨어 컬렉션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롯데백화점에 낚시 콘셉트 매장인 ‘도시어부 스토어’를 오픈하고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아웃도어업계의 ‘낙시웨어’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K2 마케팅팀 김형진 팀장은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업계 역시 낚시에 주목하고 있다”며 “K2도 아웃도어 기술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낙시웨어 론칭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연일 현장’ 조봉환 이사장… 지원도 ‘듬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임 후 매일 현장 행보에 나서  
문래 기계 집적단지서 애로 청취

지난 1일 취임후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이번엔 소공인 집적지구를 찾았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조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 기계·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를 청취했다.

문래 소공인 집적지구에는 기계·금속, 판금·표면처리 등 관련 소공인 약 1350곳이 자리잡고 있다.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한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전시실 (116㎡) ▲3D프린팅 첨단 장비실 (100㎡) ▲교육 및 소통공간(90㎡)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구에 위치한 씨엔에스를 방문해 이수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시설을 활용해 소공인을 위한 ▲제품·기술혁신 지원 ▲수·발주시스템 및 협업체계 구축 지원 ▲마케팅·기술지원 ▲경영역량 교육 및 애로해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현장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별도로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판로, 전시, 수출지원, 신기술 스마트 제조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소공인을 위한 현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GS25서 ‘고고씽’ 전기자전거 충전하세요”

편의점 GS25는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자전거·킵보드 충전 서비스를 점포에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GS25는 오는 6월부터 국내 최초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고고씽’과 손잡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충전 서비스 공간 대여 및 충전 시설 제공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근거리에도 적합한

개인용 이동수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고씽은 서울 강남과 판교 지역에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공유 전동 킵보드 및 전기 자전거 800여 대를 설치, 운영한다. GS25는 인근 지역 점포에 전동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과 충전 시설을 설치해 반납, 충전, 배터리 교환 등을 지원한다.

/김민서 기자

# 솔로 기념일 ‘블랙데이’… 짜장라면 매출 ‘쑥’

20대 여성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 일명 ‘블랙데이’에 편의점 짜장라면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트렌드분석팀이 최근 5년간 4월 14일 ‘블랙데이’ 때 짜장라면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주 대비 매출은 평균 46.2%나 높았다.

블랙데이는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



CU에서 짜장라면을 구입하는 고객. /BGF리테일

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으며 위로하는 날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공식적인 기념일이다.

/김민서 기자

# “캠코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캠코,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나눔목 또는 시중은행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은 갈수록 대범해져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고객에게 위조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원증을 제

시하거나 캠코를 사칭한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사기집단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은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해킹프로그램으로 고객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할 경우 사기집단으로 자동 연결되어 금

용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 체크카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hj89@